GBIF에 3년간 자연자원 7만여건 등록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성남시, 파파리반딧불이·청딱따구리등 포함

시민 모니터 중추적 역할… 전체의 97% 등록

경기 성남시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지비아이에프)에 등록한 지역 자연자원 자료가 3년 누적 7만3714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 전 세계 111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생물다양성 정보 플랫폼으로, 약 36억건의 자연자원 관찰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정책 수립, 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2023년 6월2일 국립중앙과학관(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소)과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민과 함께 조사한 식물·곤충·조류·어류 등 지역 자연자원 자료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지속적으로 등록해 왔다.

연도별 등록 건수는 ▲2023년 3만6118건 ▲2024년 1만8787건 ▲2025년 1만8809건이다.

등록 자료에는 탄천, 율동공원, 남한산성, 금토산, 영장산 등 지역 곳곳에서 관찰된 성남시 깃대종인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와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의 발견 위치와 횟수, 기록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물종 관찰과 기록 등 과학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축적한 결과물이다.

자연환경 모니터로 활동하는 시민 30명이 데이터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전체 등록 건수의 97%에 해당하는 7만1494건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등록했다.

나머지 3%인 2220건은 율동공원, 남한산성 등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행사에 참여한 자연환경 모니터와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 조사·발견한 생물종 자료다.

데이터 등록 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성남시 자연자원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 기록을 입력하면,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학명의 정확성, 사진 자료를 통한 종 확인 등 자료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등록한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수원시 고색동등 단독주택도 軍소음 보상

3종구역 인접 41개번지 지정

작년 1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경기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이민근 시장(왼쪽)이 최근 팔곡일반산업단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팔곡일반産團 기업 불편 최소화

현장간부회의서 현황 점검·현장 의견 공유

기업 맞춤형 지원·기반시설 유지·관리 강화

경기 안산시가 최근 팔곡일반산업단지(이하 '팔곡산단')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팔곡산단은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에 조성된 공영개발 산업단지로, 총면적 약 14만㎡ 규모에 6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19년 착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2025년 준공 인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제조, 금속가공 산업군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와 함께 공원·경관녹지 등 공공시설도 조성돼 쾌적한 산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날 현장간부회의에서는 팔곡산단 준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반 시설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준공 이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와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팔곡산단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산=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기업현장 직접 방문 일자리 발굴

파주시, 발굴단 운영 본격화

산업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경기 파주시는 지역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시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발굴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발굴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 조건과 직무 내용을 구체화해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연결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인력이다.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출판의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서·출판·콘텐츠 관련 업종을 비롯해 서비스·지식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산업 다각화 기반의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은 폭넓은 일자리 발굴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기업 방문, 구인 수요 파악, 구인 등록 지원 등 현장 업무를 강화했으며,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발굴단은 ▲지역내 기업체 방문을 통한 구인 수요 파악 및 일자리 발굴 ▲채용 조건·직무 내용 점비 등 구인정보 정리·보완 ▲워크넷 등 구인 등록 지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상설·동행면접, 채용행사 등) 연계 ▲방문 일지 작성 및 업체별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시민안전보험' 2년간 1114명 혜택

용인시, 모든 시민 자동 가입

개인 보험 관계없이 중복보상

경기 용인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1월까지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용인시민은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2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이 총 3억5657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25년 441명이 2억384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공영텃밭 3곳 626구획 분양

인천 부평구, 9~13일 접수

인천 부평구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도시농부를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공영텃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공영텃밭은 갈월샘텃밭, 부영텃밭, 청천텃밭 등 3곳으로, 총 626구획 규모다. 이 가운데 개인텃밭은 581가구, 단체텃밭은 45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이며, 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평구 소재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직장공동체, 도시농업단체 등이 해당 된다.

접수는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텃밭은 오는 24일 전산 추첨을 통해 예비 선정자를 발표한 뒤 참여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3월20일 최종 선정자를 확정한다.

단체텃밭 역시 개인텃밭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신청 수요가 초과할 경우 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텃밭은 3월28일부터 11월22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며, 분양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원하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中企·복지시설등 67곳에 노동자 쉼터

경기도, 올해 9억여원 투입

설치·개선 최대 4000만원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9억1000만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만~4000만원(신설 3000만원·시설개선 2000만원·공동휴게시설 4000만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27일까지며 관심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청년들에 '컬처페이 20만원'

인천 동구, 올해 1000명 지원

인천 동구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컬처페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1000명이며 구에 거주 중인 19~39세(1986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선정된 자는 지역내 공방·공예, 서점, 스포츠시설, 예체능 학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제출서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인천청년포털내 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광주시,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설

경기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태임신은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로, 단태임신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 조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분류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경기 안양시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693개에서 736개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 서비스업 등 총 43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30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들의 다양한 입주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정책 수립에 앞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인근 지자체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등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에는 ▲스마트팜(수직농장) ▲OEM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공유창고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안양=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장학금 기탁

경기 광주시 기업인협의회 광남지회 김영선 회장이 최근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광남1·2동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은 기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화성시, 내년 주민제안사업 4월까지 공모

경기 화성시가 2일부터 4월30일까지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제안은 화성특례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청소년시설 이용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사업 제안 유형은 총 4개 분야로, ▲시청 및 구청 사업부서 소관 사업(사업당 최대 3억원) ▲지역 밀착형 읍·면·동 단위 사업(사업당 최대 5000만원) ▲청년참여예산(사업당 최대 5000만원) ▲청소년참여예산(500만~3000만원)이다.

특히 청년 및 청소년참여예산 분야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분야로, 수혜자 다수가 청년·청소년이거나 청년·청소년 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화성=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의정부시, 올해 50가구 벽걸이 에어컨 지원

경기 의정부시는 폭염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강 보호와 여름철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에어컨을 설치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냉방기기 미보유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완화하고 에너지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가구를 선정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750만원이며, 가구당 지원액은 115만원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4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6월 중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시흥시,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경기 시흥시는 시민 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만드는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 제7기 시민 크리에이터(창작자) 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 20명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최신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는 시흥시를 주제로 한 롱폼 영상 1편과 쇼츠 영상 1편, 총 2편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완성된 영상은 시민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교육은 유튜브 채널 교육 및 브랜딩·인공지능 전문가가 진행하며 오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 차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 교육에서는 영상 제작 실습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브랜딩 및 채널 확장 관련 특강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시흥시를 알리는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